

## 광주·전남 코로나 '속수무책' ... 연말연시에는 '집콕'

종교시설·요양원·병원발 집단감염 심각...광주 누적 확진 1000명 육박  
이번 고비 못넘기면 '셧다운'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광주·전남에서 방역강화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광주는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전남은 25일만에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올해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시즌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대확산이 꺾이지 않으면 전 국민의 일상생활이 모두 중단되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6면〉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13명, 전남 2명 등 총 15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 누적확진자는 광주 954명, 전남 527명이다.

이날 추가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 942-944, 947번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광주기독병원 관련자다. 기독병원 관련 확진자는 지난 20일 간호조무사(광주 876번) 이후 11명으로 늘었다. 광주 945번과 951-954번 확진자는 에버그린 요양원 시설 관련 감염자다.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 감염자는 총 29명(1명 사망)으로 증가했다. 상주 BJT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이날 1명(광주 950번)이 추가돼 43명으로 늘었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전남에서도 같은 날 12명이 확진돼 25일만에 일일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교회 목사 동료 모임을 통해 코로

나 19가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다. 지난 21일 순천 동산교회 부목사(전남 512번), 22일 고흥 광주교회 목사(전남 520번) 및 보성 호동교회 목사(전남 525번) 등 3명의 목사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확진 판정받기 전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목사 셋 중 가장 먼저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는 무엇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순천, 고흥, 보성 소재 교회 목사 셋이 잇따라 확진된 데 이어, 이들의 아내, 자녀, 신도 등 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교회 관련 전남 확진자는 사흘새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또 교회 3곳과 확진 판정받은 목사 가족들이 다니는 순천공고, 고흥 남양초·동강초·대서중학교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어지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있다. 전남지역은 지난달 29일부터 출근 하루 확진자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난 22일 12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재확산 기로에 선 모습이다.

시도 방역 관계자는 "고령자의 확진 판정이 늘면서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 방역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특별 방역 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현호 기자 khk@kwangju.co.kr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비대면으로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광주시 서구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앞 광장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상징하는 구유와 조형물이 불을 밝혔다. 올해 설치된 구유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의미가 담겨있다. 천주교계는 올해 성탄절엔 미사없이 비대면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고령환자 급증...남은 중증병상 3개 뿐

60세 이상 확진자 총 57명  
광주·전남 병상 부족 현실화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위험군인 고령환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의 치료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요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고령환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0일간(12월12~22

일) 60세 이상 확진자는 총 57명으로 전체 대비 38%에 이른다. 21일 17명, 22일 18명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 확진자 증가로 중증 병상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중증 전담 병상을 갖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화산전담대병원에는 총 22개 병상이 있는데, 이 중 3개(조선대병원)만 남아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연세가 있고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중증 전담 병상에 입원 중이다. 중증 환자가 더 발생하면 병상을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중증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에 관심 '뚝'  
5無 크리스마스 ▶6면  
겨울 비타민 유자 ▶22면  
내일 성탄절 신문 읽는다  
TV 프로그램 ▶21면

since 1952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아특별’ 국회 상임위 통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새 전기  
내년 1월 8일 전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강력 반대로 진통 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12월 임시회 회기인 1월 8일 이전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2시간의 추가 토론 끝에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병훈(동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

시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법안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화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별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고,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면 지난 2015년 3월 개정돼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던 아특별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특별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반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에 옮겨올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광주에 올 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환경공단은 23일 오후 2시를 기해 광주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 지역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주의보 농도는 76 $\mu\text{g}$ (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text{m}^3$ 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정제에 따른 초미세먼지 축적, 국외 유입으로 인해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24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등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상고 21실 | 운동 및 문화회관 3개소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공금(등) 등 정부정책은 시행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에 따른 소외지 피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외지 피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개발사업'을 참조하십시오. ※ 계획도면상 100㎡ 미만의 매립지 시설(미포)은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KAIT 한국자산신탁 새 삼일건설 새 삼일루체아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